

요약

최근 의료기술은 인공지능, 유전자 분석, 정밀의료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보험상품의 위험 평가와 보장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보험산업은 고가의 혁신적 치료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장범위, 언더라이팅, 위험분산 방식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네바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재편하고 있음
 - 진단 분야에 있어서 AI 기반 영상분석과 액체 생체검사는 향후 5년 내 언더라이팅의 정확도 제고와 질병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²⁾
 - AI 영상분석은 CT·MRI 등에서 초기 종양, 미세 출혈 등 미묘한 이상징후를 감지하여 조기 진단을 촉진함
 - 액체 생체검사의 일종인 다중암 조기 진단(Multi-Cancer Early Detection; MCED)은 혈액 내 분자 신호를 분석하여 여러 유형의 암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음
 - GLP-1(Glucagon-Like Peptide-1) 약물군은 향후 5년 내 주요 질환의 치료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자 치료는 의료 패러다임을 '질병 치료'에서 '유전적 위험 제거'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됨
 - 제2형 당뇨병 치료제³⁾로 쓰이던 GLP-1 약물은 2014년 비만치료제로 추가 승인된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됨
 - 유전자 치료는 한 번의 치료로 특정 유전질환의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치료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음
- 의료 혁신의 영향은 보험상품별로 상이하며, 그중 건강보험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GLP-1 계열 약물 등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처방이 확대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증가로 보험회사는 손익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미국 건강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2022년 85.0%에서 2024년 89.0%로 상승하는 추세임⁴⁾
 - 반면, 예측 진단과 예방 치료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음
 -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 대한 GLP-1 치료제의 조기 처방을 통해 제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고위험군에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출을 관리할 수 있음

1) Geneva Association(2026. 2.), "Insuring Tomorrow's Cures: Balancing the promises and practicalities of innovative medicine"

2) Swiss Re(2024), "Multi-Cancer Early Detection Cancer screening beyond today's boundaries"

3)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당뇨병을 의미함

4) NAIC(2024), "US Health Insurance Industry Analysis Report"

- 한편, 사망보장 상품 영역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은 사망률 개선, 보장성 확대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전자·세포·암 치료의 발전은 기대수명을 늘리고 전체 사망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률 개선 추세를 위험 가정 및 보험료 책정에 반영해야 함
 - 특히, GLP-1 치료제의 광범위한 채택과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는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45년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률이 6.4~8.8%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⁵⁾⁶⁾
 - 또한, 기존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던 환자들이 완치되거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장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정밀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표준요율 또는 보다 정확한 할증요율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정 질병 유병자에게도 보장을 제공하는 모델로 구체화되고 있음

- 생존보장(Living benefit) 상품은 의료 혁신으로 인해 세부 상품별로 차등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액체 생체검사와 같은 조기 진단 기술 발전으로 중증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함
 - 향후 치매 치료제 개발과 진단 기술 발달로 고객의 건강상태 조기 인지 및 재무설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가 비용분담형 장기요양보험상품을 설계한다면 장기요양에서 흔히 나타나는 보장공백을 해소할 수 있음⁷⁾
 - 일부 장애보험상품에서 만성질환·비만 관련 질환의 치료 성과 개선 시 장기 보험금 지급이 감소할 수 있음⁸⁾
 - 예를 들어, 정신건강 치료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항비만 치료제의 발전은 장애 청구의 주요 원인인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보험금 청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제네바 협회는 의료 혁신이 의료시스템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근본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장범위, 보험 상품, 언더라이팅, 비용구조, 규제 대응 전반에 대한 설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함
 - 언더라이팅은 일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하는 동적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고가 치료에 대응하기 위해 구독형이나 치료 효과에 따른 비용 분할지급 방식 등 새로운 비용분담 모형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유전자 정보 및 개인건강 정보 활용과 관련한 정보보호 및 공정성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표 1〉 의료 혁신이 각 보험상품군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유형	건강보험	사망보장 상품	생존보장 상품
주요 영향	단기적 비용 충격과 조기 예방을 통한 비용 절감	사망률 개선과 보장 대상의 확대	상품별 차등 영향

자료: Geneva Association(2026), "Insuring Tomorrow's Cures: Balancing the promises and practicalities of innovative medicine"

5) Swiss Re(2025. 9.), "The future of metabolic health and weight loss drugs"

6) RGA(2025. 11.), "RGA GLP-1 Study: Weighing the Evidence"

7) OECD(2024), "Is Care Affordable for Older People?"

8) Geneva Association(2023), "Promoting Peace of Mind: Mental health and insurance"